18일(한국시간)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1회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 류현진이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살아난 괴물' 류현진, 눈부신 역투

NL 서부지구 1위 결정전서 7이닝 무실점으로 5승

4년 만 콜로라도전 승리…오승환, 패배로 등판 불발

'괴물'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올해 소속팀의 농사를 좌우할 중요한 일전에서 눈부신 역투를 펼쳐 시즌 5승(3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 4개만 맞았을 뿐 실점하지 않고 쾌투했다.

몸에 맞는 공과 볼넷은 한 개도 주지 않았고, 삼진 5개를 솎아냈다.

류현진은 8-0으로 넉넉히 앞선 8회초 배턴을 알렉스 우드에게 넘겼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전환한 우드가 2점을 주긴 했으나 다저스는 8-2로 승리해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1위로 올라섰다.

콜로라도는 다저스보다 0.5경기 뒤진 2위로 내려앉았다.

류현진은 지난달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래 4번째 도전 만에 5승(3패)째를 거둬들였다. 평균자책점은 2.42에서 2.18로 내려갔다.

7이닝 동안 공 93개를 던져 63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초반부터 전력투구로 콜로라도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류현진은 1회 까다로운 톱타자 찰리 블랙먼을 유격수 매니 마차도의 호수비로 잡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1사 후 '천적' 놀런 에러나도에게 2루수 앞 내야 안타를 허용했으나 트레버 스토리를 힘없는 3루수 땅볼로 요리하고 1회를 마쳤다.

선두 타자 족 피더슨의 솔로 아치, 콜로라도 투수 존 그레이의 폭투에 편승한 득점 등으로 타선이 2점을 먼저 벌어주자 류현진도 힘을 냈다.

2회를 삼자범퇴로 마친 류현진은 3회 두 타자를 쉽게 돌려세운 뒤 좌익수 피더슨의 아쉬운 수비로 블랙먼에게 좌월 2루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D.J.르메이유를 2루수 땅볼로 잡아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6-0으로 앞선 4회초 에러나도를 중견수 뜬공으로 돌려세운 류현진은 2사 후 홀리데이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으나 후속이언 데스먼드를 다시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다저스 타선은 2-0으로 앞선 3회말 피더슨의 2루타와 저스틴 터너의 안타로 무사 1, 3루 추가 득점 기회를 열었다.

이어 마차도의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바가지 안타로 1점을 얻었다.

이어진 무사 1, 2루에서 맥시 먼시가 그레이를 두들겨 우중간 스탠드에 떨어지는 석점 홈런을 터뜨려 점수를 6-0으로 벌렸다.

먼시의 홈런으로 사실상 경기의 승패가 갈렸다.

류현진은 6-0인 4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을 고른 뒤 곧바로 피더슨의 우월 투런포 때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시즌 두 번째 득점이다.

5회와 6회 연속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친 류현진은 7회 팻 밸라이카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두 타자를 내보냈다.

그러나 베테랑 홀리데이를 낮게 떨어지는 컷 패스트볼로 헛스윙 삼진으로 낚은 뒤 데스먼드를 2루수 앞 병살타로 처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콜로라도의 구원 투수 오승환(36)은 허벅지 근육통을 떨쳐내고 출격에 대비했으나 팀 패배로 등판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상' 추신수 앞에서…최지만, 시즌 10홈런

4타수 2안타 2타점 활약

추신수는 무안타로 침묵

최지만(26·탬파베이 레이스)이 '우상'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 앞에서 개인 첫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최지만은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와의 방문 경기, 1-0으로 앞선 6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우완 선발 아드리안 샘프슨의 시속 146㎞ 싱킹 패스트볼(싱커)을 받아쳐 중앙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13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 이후 4경기, 5일 만에 나온 시즌 10번째 홈런이다.

이전 시즌까지 5홈런(2016년)이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이었던 최지만은 올해 벌써 10홈런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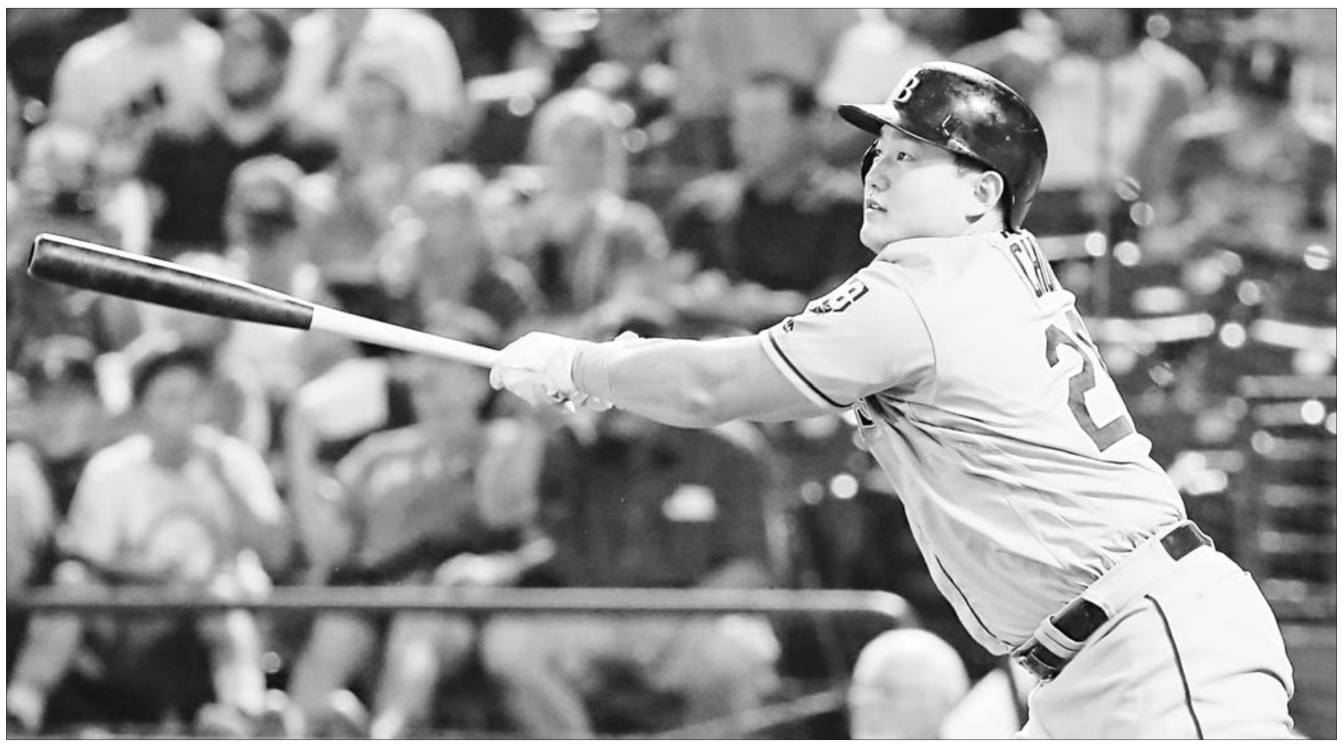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은 1회초 무사 1, 3루에서도 샘프슨의 시속 148㎞ 싱커를 공략해 우전 적시타를 치며 3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을 깼다.

그리고 기세를 이어가 6회에는 홈런포를 터트렸다.

최지만은 4회 우익수 뜬공, 8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나 '3안타' 경기를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처음이자 2016년 7월 20일 이후, 425일 만에 벌어진 추신수와 최지만의 맞대결 승자는 '동생' 최지만이었다.

최지만은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 결승타의 주인공도, 이날 유일하게 홈런을 친 타자도 최지만이다.



탬파베이 레이스 한국인 타자 최지만이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방문 경기, 6회초 솔로 홈런을 친 뒤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최지만은 개인 첫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AP=연합뉴스

탬파베이는 최지만 덕에 3-0으로 승리했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62에서 0.267(176타수 47안타)로 올랐다. 타점은 31개로 늘었다.

텍사스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코리언 메이저리거 맏형' 추신수는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1회 테일러 글래스노의 슬라이더에 속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3회에는 중견수 뜬공에 그쳤다.

추신수는 6회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얻으며 3경기 연속 출루 행진은 이어갔다. 하지만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에 그쳐 끝내 안타를 만들지 못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70에서 0.269(532타수 143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경기 전, 추신수와 최지만은 그라운드 위에서 만나 악수를 했다.

추신수는 고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와 마이너리그 생활을 견디고 메이저리그에서 손꼽는 타자로 올라섰다.

최지만도 한국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고교 졸업 후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2016년 빅리그에 데뷔했지만, 좀처럼 경기에 나설 기회를 얻지 못하던 최지만은 탬파베이에서 많은 기회를 보장받았고 최근 팀의 중심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일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북 태권도시범단 공연

韓태권도, 7개월 만에 다시 평양 간다

세계연맹 시범단, 10월 31일·11월 2일 공연

뿌리는 하나이나 한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50년 가까이 두 갈래 길을 걸어온 태권도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평양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18일 "세계연맹 총재단과 시범단이 국제태권도연맹(ITF) 초청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계연맹 시범단은 10월 31일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 11월 2일에는 국제연맹과 합동 시범을 펼친다.

11월 1일에는 태권도 성지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할 계획이다.

세계연맹에 따르면 국제연맹이 지난달 24일 초청장을 보내 세계연맹과 국제연맹의 평양 합동공연을 제안해 이번 방북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주도로 성장한 세계연맹과 북한을 주축으로 발전한 국제연맹은 태권도 종목 국제경기단체다.

세계연맹이 평양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선보이는 것은 지난 4월 초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우리 예술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세계연맹 시범단은 4월 1일 태권도전당에서 단독 공연을 한 뒤 이튿날 평양대극장에서 국제연맹과 합동공연을 펼쳤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자며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평양방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 태권도시범단이 북한을 방문해 시범공연을 한 것은 16년 만이자 분단 이후 두 번째였다.

2014년 8월 중국 난징에서 세계연맹과 국제연맹이 합의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두 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태권도 사업에 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PGA투어 최강자 가린다…21일 페덱스컵

타이거 우즈 출전…디섐보·로즈·토머스와 격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최강자 30명만 추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에 5년 만에 타이거 우즈(미국)가 돌아온다.

2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천385야드)에서 열리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75만 달러)은 시즌 '왕중왕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개막해 올해 8월까지 이어진 2017-2018시즌 PGA 투어 정규 대회와 앞서 열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3개 대회까지 선수들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157만5천 달러(약 17억8천만 원), 페덱스컵 1위를 차지하면 1천만 달러(112억9천500만 원)를 받는다. 우승과 페덱스컵 1위 둘 다 잡으면 한 번에 약 13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골프 황제'로 군림했던 우즈는 페덱스컵에서도 족적을 남겼다.

페덱스컵이 도입된 2007년 첫 1위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고, 2009년 다시 1위에 올라 지금까지 유일하게 두 차례 페덱스컵 1위에 오른 선수로 남아 있다. 2007년엔 투어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도 가져갔다.

현재 상태로 1천만 달러의 보너스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단연 페덱스컵 랭킹 1위인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다.

PGA 투어에 따르면 그는 이 대회에서 공동 29위까지 내려가더라도 산술적으로 페덱스컵 1위를 지킬 확률이 남아 있다.

현재 2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3위 토니 피나우, 4위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은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자력으로 페덱스컵 역전 1위 등극이 가능하다.

지난해 페덱스컵을 제패한 저스틴 토머스(미국)도 현재는 5위지만, 우승하면 자력으로 2년 연속 페덱스컵 선두에 오를 수 있다.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는 출전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웠던 안병훈(27)이 지난 대회인 BMW 챔피언십 결과 페덱스컵 랭킹 42위로 시즌을 마쳤다.

교포 선수로는 현재 페덱스컵 랭킹 22위인 케빈 나(35)가 유일하게 나선다.

다른 아시아 선수로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페덱스컵 랭킹 27위)가 있다.

아직 아시아 선수가 페덱스컵 1위에 오른 적은 없다. /연합뉴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성료

1천120명 참가…교육의 장 기대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5~16일 보라매 축구장과 동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18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호평 속에 성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클럽대항 청소년 대회에는 축구와 농구 종목에 96개 클럽 1천12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해 틈틈이 연마했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축구에서는 봉알7기팀(고등부)과 월곡FC팀(중등부)이, 농구에서는 광주흙팀(고등부)과 FOBIS팀(중등부)이 각각 우승컵을 안았다. 또 팀별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해 준 학생에게는 최우수선수상과 우수선수상을 수여했다.

시체육회는 "클럽대항 대회를 더욱 활성화해 엘리트-생활-학교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단순히 경기에만 출전하는 대회가 아닌,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기 기자 gie9928@